



# 가람의 장면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석사는 지형에 맞추어 석축을 쌓은 외부공간이 당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가람 전체가 확장 듯한 느낌을 준다. 사진은 무량수전에서 바라본 부석사 전경.

## 계단식 석단 가람의 주인

### 부석사

국립 중앙박물관장을 지낸 고 최순우 선생은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명수필로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극찬한 바 있다. 건축 전문가들이 가장 뛰어난 사찰건축을 꼽으려면 주저없이 영주의 부석사를 추천한다. 부석사에는 고려시대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이 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로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다음으로 오래된 국보급 문화재며, 빼어난 형태적 비례와 정교한 축조기술로도 대단한 가치를 갖는 건물이다. 그러나 건축가들의 찬사는 무량수전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무량수전 보다 더 거대한 건축이 있기 때문이다.

부석사는 수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건물로는 천왕문과 범종루, 안양루와 무량수전, 그리고 뒷산 숲속의 조사당과 용진전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최근 조사당과 상보전들이 신축되었지만 규모도 작고 한쪽에 자리잡아 그다지 주목할 대상은 못된다. 소백산 지역의 현안을 차지할 만큼 광활한 대지에 불과 4동의 건물만이 서있다면, 마치 큰 호수에 가련배 두세척이 떠 있는 것 같이, 보통의 숲속으로는 청하고 소산한 가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절에 올라가면 모든 외부공간들은 펼쳐 있다고 느끼고 만다. 왜일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대사는 소백산 깊숙한 곳에 부석사의 기틀을 닦고 화엄학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삼국으로 정립되어 600여년을 지속해왔던 한반도의 나라이들이 드디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기를 했지만, 여전히 세 나라의 백성들은 문화적 차이와 적대감으로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의상이 전교한 화엄학은 분열했던 사회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화엄의 통합사상 반영 소백산맥 능선마다 무량수전 경배하듯

일정한 비례로 조화를 이루면 일정한 공간적 느낌이 생기고, 이를 건축적으로 쓰는 외부공간이라 부른다.

특히 한국건축은 좁은 내부공간보다는 시원한 외부공간을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다. 흔히 우리가 마당이라고 부르는 뜰이 대표적인 외부공간이다. 마당은 건물들의 벽면 사이로 만들어지는 외부공간이지만, 부석사의 경우는 웅장한 석단들로 만들어진 특별한 외부공간이다. 소수의 건물들 밖에는 없지만 가람 전체가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석단들이 만드는 외부공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부석사 건축의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석단들이다.

그러나 무작정 석단들을 쌓았다면 지금과 같은 공간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신개발지의 위치 개발 현장과 같이

오히려 더욱 삭막한 장소를 만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람의 건축가들은 석단의 위치와 높이를 철저하게 원래의 지형에 맞추어 쌓고 다듬었다. 심지어 석단의 높이는 서로 다르고, 석단이 위치하는 간격도 다르다. 높은 단 하나를 오르면 다시 낮은 단들이 나타나고 다시 높아지는 등, 매우 리드미컬하게 걸음을 조절한다. 가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산술적 거리는 매우 길고 고저차도 심하지만, 부석사를 방문하는 그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는다. 율동적으로 배치되고 세워진 석단들 때문이다. 석단들은 바로 자연 지형의 생김새에 따라 세워진 땅의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십여개의 석단의 정점에는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놓여진다. 하나의 장엄한 소나타와 같이 율동적인 흐름의 정점에 위치한 두 건물의 아름다움도 대단하지만, 일단 안양루에 오르든지 무량수전의 기둥에 기대서 지나온 행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 장면이 바로 의상이 무량수전을 바로 이 자리에 앉힌 궁극적인 이유가 기 때문이다.

돌아보는 눈 앞에는 구름 아래로 첩첩한 산들이 부르르우면서도 합창 곡선들을 겹쳐가며 대자연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이쪽면 이처럼 절대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대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자연의 풍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쩌면 그처럼 수많은 석단을 쌓아가며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대자연의 선물을 품에 안기 위함일 것이다.

소백산맥의 수많은 산줄기와 능선들이 무량수전을 향해 경배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말했듯이 부석사는 가장 아름다운 장엄을 가진 가람이 됐다. 땅의 생김새에 충실하게 건축을 할 줄 알았고, 자연을 앞 둔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던 의상선님과 그 후에 스님들이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 바른신행 이끌고 인재 기르고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 사찰도서관의 필요성

불교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불서읽기를 통해 불교 이해의 폭을 넓혀야만 한다. 많이 읽면 알수록 진법 또한 빠르고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서읽기는 바로 불교의 미래를 읽는 것이기도 하다.

'책씨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다. 하지만 평상이 깔려있지 않다. 경전 독송과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불서를 읽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게 사찰도서관을 설립할 것도 없다.

미래는 더욱더 복합적인 신행생활을 요구한다. 다양화된 사회와 신도들의 분화되는 지적 욕구는 더이상 법당에만 안주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불서 읽기'는 바른신행의 으뜸 길잡이다. 다양한 불서와 인접학문을 다룬 책들은 스님의 법문과는 다른 또다른 세상을 열어준다. 자연스레 신심이 높아지고, 불자단체도 길러진다. 절마다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도서관을 보유한 사찰은 전국에 16곳 정도로 전체 사찰수에 비하면 극소수다. 심지어는 조계종 교구본사급 사찰 가운데에서도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책을 빌려갈 수도 있다. 지역 문화공간이자 화합의 장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현한 말이다. 공들인 도서관은 신도들에게 '힐링'의 역할도 제공한다. 각종 불교정보를 이곳에 비치, 정보화시대에 발맞추면서 자유롭게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사찰에 있는 스님들의 '몸집임'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님이 달라지면 신도도 달라진다. 그러면 사찰의 모습이 달라지고 불교가 달라진다. 그 시작이 바로 '책 읽기'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도서관들이 도서관리 전산화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에 애를 먹고 있다. 장서의 다양화



사찰도서관은 불자들의 깊이있는 신행생활과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21C를 준비하는 '지식도량'이다. 사진은 조계사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청소년들의 모습.

### "불서읽기는 불교미래 여는 디딤돌" 지역주민 문화공간...포교사 역할

### 본사, 사찰도서관 신설·운영 상담

서를 읽는다. 스님들도 이곳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포교가 자연스레 이뤄지는 안락이조의 효과도 있다.

승려구 방이동에 사는 진여행보살(40)은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마자 서둘러 불광사 도서관으로 향한다. 불서 읽는 재미에 빠져든지 어느덧 한달째, 도서관 분위기와 정산입력 등을 위해 1년여 동안 출했던 구슬땀으로 보람있는 도서관 하나를 일궈냈다. 무엇보다도 상쾌함마저 느끼게 한다.

"사찰은 그 지역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한 권의 불서를 빌려갔다면 불자 한 사람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천사 주지 성운스님은 사찰도서관이야말로 이 시대 포교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한다. 사찰도서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

현 운영상의 어려움도 토로한다.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 사찰도서관을 만들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엇두를 내지 못하는 스님과 신도들도 많다.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동안 '우리 절에 도서관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월1회 연재되는 기획기사를 통해 사찰도서관 신설 및 운영방법, 활용방법 등을 폭넓게 안내한다. 이와 함께 사찰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사찰과 불자들에게 불서 구입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카운슬링도 실시한다.

또 '우리 절에 불서를 보냅니다' 운동도 함께 전개해 모든 불자들이 사찰도서관 만들기를 돕고 법공양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사찰 도서관 현황

도서관	보유장서	연락처
해인사	2만권	(0599)931-1016
봉선사	2만2천권	(0331)254-3371
사천암사	3천권	(02)393-3900
조계사	1천권	(02)720-1390
삼선교도원	4천권	(02)923-0582
불광사	2천권	(02)413-8062
경남불교대	5천권	(02)349-5300
삼천사 인덕원	1천권	(02)385-8205
강남교도원	7천권	(02)539-2631
부산 삼공사	5천권	(051)808-7111
부산불교교도원	3천권	(051)466-4080
대전 북이당	3천권	(042)263-1080
일산 일각사	3천권	(034)913-7744
여수 석천사	5천권	(066)366-1170
단양 구인사	1천권	(044)423-7100
순천 선암사	3천권	(066)354-5247

##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안곳잇 제조특이(특어 제122168호)/말각동 실용신안(특목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디수 보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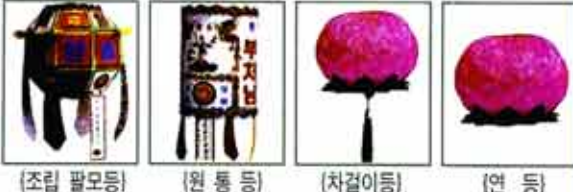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싹크등, 공단등



### 세디사인의 팔모 조립등

간편하며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조립등이 곧 출시됩니다. 규격 : 13cm



다양한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울) 을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문사(광주) 동화사(광주) 깃바위(광주) 악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문주사(화성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지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원하시는 사찰에는 건물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훈궁동 180-1  
천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 봉축연등·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시공전선 전개도

### 특징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 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속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권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현중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17호 H.P: 019)380-3786 FAX: 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령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